**교제와 나눔**

**\*\* 저희 교회에 처음 나오신 분들과 방문하신 분들을 진심으로 환영합니다\*\***

**ㆍSOM찬양단 부활:** 예배 전 함께 찬양하는 시간을 갖습니다.

**ㆍ성금요기도회:** 19시 Fliednersall

**ㆍ고난주간 기도띠 잇기:** 별지 참고, 앞뒤 좌우에 있는 지체들을 위해 중보

**ㆍ부활절:** 다음 주일, 연합, 성찬식

**ㆍ4월 나라주일:** 예배 후에 나라 별로 말씀의 은혜를 나누세요.

**ㆍ청년 A,B 나라 모임:** Gemarker Kirche in Barmen 방문

**ㆍ매일성경 5,6월호:** 배부-김성희

**ㆍ청소년수련회(JC 캠프):** 4/22-25, [www.jccamp.de](http://www.jccamp.de) 참조

**ㆍ어린이성경학교 1차 준비모임:** 4월 27일(토) 에센한인교회당 Alfredstr. 215

**ㆍ지난 주 방문:** 김시연

**ㆍ귀가:** 조선형 **ㆍ출타:** 권순아-크리스티안

**ㆍ생일:** 김영수, 김종권, 이유하, 김하은

**◆말씀일기 일정**

일/마26:36-56 월/마26:57-75 화/마27:1-10 수/마27:11-26

목/마27:27-44 금/마27:45-56 토/마27:57-66 일/마28:1-20

**◆114 운동-**하루**(1)** 한번**(1)** 말씀일기 & 성경 **(4)**장 통독

**(성경 200독 대행진: 156독)**

**◈ 예배위원 안내 ◈**

|  |  |  |  |  |
| --- | --- | --- | --- | --- |
|  | **4월 14일** | **4월 21일** | **4월 28일** | **5월 5일** |
| **예배기도** | 신일수 | 김한진 | 박상훈 | 석호선 |
| **말씀일기** | 천춘자 | 김성희 | 신상희 | 석혜진 |
| **안내위원** | 한상철, 예배부 | | | |
| **헌금위원** | 유근임, 정규선 | | | |
| **봉헌특송** |  | 청소년부 | 넓은 나라 | 유초등부 |
| **애찬봉사** | 나라 주일 | 밥상 넷 | 밥상 다섯 | 밥상 여섯 |

**36-15호 2019년 4월 14일**



**“나의 평안을 너희에게 주노라”** (요14:27)

주일예배: 12:00 Fliedner Saal

유초등부예배: 12:00 Teestube

청소년부예배: 12:00 Teestube

토요기도회: 07:00 Teestube

선교성경아카데미(MBA):

누구든지 언제 어디서나

**담임/ 손교훈 목사** Kyo-Hoon Sohn

☏ 02131-5249 186 HP. 0176-5779 1004

**교육/ 이재용 목사** HP. 0157-5346 6942

**교육/ 신동철 목사** HP. +41-77-816-5678

**선교협력/ 이광열 목사** HP. 0157-7388 7498

1983년 5월8일 창립 **뒤셀도르프선교교회**

**교회 홈페이지 duemission.de**

**교회주소Alte-Landstr. 179, 40489** **Düsseldorf**

**종 려 주 일 예 배(Palmsonntag)**

오

인도: 손교훈 목사

|  |  |
| --- | --- |
| ※입례송/Eingangslied ……...……………왕이신 나의 하나님…………...……  ※예배부름/Eingangsgebet …………………………………………………………………… | 다함께  인도자 |
| ※참회기도/Buße …………………………………………………………….…………………… | 다함께 |
| ※신앙고백/Glaubensbekenntnis ………………………………………….................. | 다함께 |
| 성시교독/Wechselwort ……………….. 교독문 129번 …………….............. | 다함께 |
| 찬송/Gemeindelied ………………………… 262장 ………………….……….…… | 다함께 |
| 기도/Gebet ………........………………………………………………............................  말씀일기/Bibeltagebuch …………………………………………….............................  찬양/Chor ………………………………………………………………………………………… | 신일수 권사  천춘자 권사  찬 양 대 |
| 성경봉독/Text zur Predigt ...…….…....… 시126:5-6 …..….....….……...... | 인 도 자 |
| .설교/Predigt ………...... **눈물로 씨뿌리면 평안합니다** …...…… | 손교훈 목사 |
| 찬송/Gemeindelied ………………………… 415장 …………………………….…  합심기도/Gebet ………………………….…………………………….………...……….....  봉헌/Kollekte ………………………………………………………………………………… | 다 함 께  다 함 께  다 함 께 |
| 교제/Bekanntmachung …….....................................................…………................ | 다함께 |
| ※파송찬양/Lob …………… 선한 능력으로(Von guten Mächten) …...... | 다함께 |
| ※축도/Segen ……………………………………………………………………...................... | 손교훈 목사 |
|  |  |

**※는 함께 일어섭니다.**

**◆ 손교훈 목사의 말씀일기 마25장 “사랑 장사” ◆**

주인의 마음을 흡족하게 했던 착하고 충성된 종은, 주인께로부터 받은 달란트를 가지고 “바로” 시작한 자이다. 손해 볼 위험을 무릅쓰고 “장사”를 해서 이윤을 남긴 사람이다. “적은 일에 충성”하였고, 그러므로 더 많은 것을 맡게 된 사람이다. “주인의 즐거움에 참여”하는 사람이다.

주인이 맡겨 준 달란트를 땅 속에 감추어 두었던 무익한 종은 하필 상대적으로 적은 달란트를 받은 자이다. 이 무익한 종이 자기 주인을 “굳은 사람”으로, “심지 않은 데서 거두고 헤치지 않은 데서 모으는”(24) 이로 이해한 것은 어디서부터 비롯된 것일까? 혹시, 자신의 맡은 일이 상대적으로 적다고 하는 것을 느낀 데서 오지 않았을까? 자신이 적은 달란트를 받았다는 사실에 불만을 가진 데서부터 시작된 것은 아닐까?

사실 한 달란트만 해도 보통 근로자 15년 임금에 해당하는 큰 것인데, 두 달란트, 다섯 달란트 받은 자와 비교해 버리면 적은 것이 된다. 내가 살아가면서 아직도 힘든 부분이 이 점인지도 모른다. 교회를 성장시켜 가야 하지만, 무분별한 성장 위주로 달려온 한국교회의 모습을 무작정 따라갈 수는 없고, 그렇다고 교회를 마냥 ‘이 모습 이대로도 좋습니다. 작은 교회가 아름답습니다’ 하면서 손 놓고 있을 수도 없다.

장사해서 이윤 남기듯이 하는 자본주의식(결국 물질만능주의) 성장을 따라가서는 안 된다는 것은 분명하다. 하지만 착하고 충성된 종은 “바로 가서… 장사”를 했다는 사실도 분명하다. 그렇다면 무슨 말일까? 결코 땅 속에 처박으면 안 되고, 결코 나중으로 자꾸 미루기만 해서는 안 되는 이 달란트, 이 장사는 무엇일까?

그것은 ‘사랑 장사’가 아닐까? 이 달란트 이야기 앞 뒤로 배치되어 있는 이야기들도 결국은 사랑 이야기가 아닌가! 신랑을 사모하여 등만이 아니라 기름을 준비하고 기다린 처녀들(1-13). 지극히 작은 자 하나를 먹이고 입히고 돌봄으로 주인의 마음을 흡족하게 하여 영생에 들어가게 된 최후의 오른편 무리들(31-46). 결국, 모두가 사랑 장사에 자신을 드렸던 자들이다.

주여, 비교하지 않게 하시고, 내게 주신 사랑으로 사랑을 키워가게 하소서.